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알고마 대학	기간	2018.01.21.~2018.02.10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시간 삼십분 정도 떨어져 있는 수세인트마리에 있는 알고마대학이라는 곳에 파견되었습니다. 학교의 크기는 순천향대학교 보다는 작았지만 있을 건 다 있는 깔끔한 시설이었습니다 ! 학교 안에 햄버거,샌드위치 파는 식당도 있어서 가끔 사 먹었고 카페도 있어서 자주 애용했습니다.
수업	저희는 부산에 동아대학교 사람들과 같은 기간에 파견되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분반시험을 봤습니다. 두 개의 반으로 나뉘졌고 시험은 컴퓨터로 보았는데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맨날 나눠서 수업하는 것은 아니였고 문법,듣기,쓰기 등과 같은 수업만 분반으로 나눠서 진행되었고 같이 하는 활동도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한국 문화알려주는 봉사하기, 글로벌친구들 만나기 같은 봉사활동과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은 모든 학생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가져갔었는데 딱히 노트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메모리 북이라고 삼주 간의 활동을 책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제출 가능했습니다. 과제도 있었지만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는 없었습니다.
Activity	알고마 대학교에서 저희를 위해 준비한 활동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했습니다 ! 먼저 첫 번째 주에는 말썰매를 타러 갔는데 풍경이 정말 예뻐고,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키도 타러 갔는데 수세인트마리가 눈이 정말 많이 오는 지역이라 인공눈이 아닌 진짜 눈위에서 스키를 타니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러한 눈과 함께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스키복이 필수인데 거의 홈스테이집에서 빌려줍니다. 그리고 개썰매를 타고 알파카를 보러갔는데 개썰매 정말 스릴있고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수세인트마리에 있는 요양원에 봉사를 하러 갔는데 알로하파티라고 하와이안스타일의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스시를 사주는 활동도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캐나다에서 밥을 보기 힘들데 오랜만에 밥을 먹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래의 글로벌 친구들에게도 한국문화를 알려주는 봉사활동도 하였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규모의 오락실도 가서 포켓볼도 치고 그 후에는 하키를 보러갔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키를 보는 곳 안에 많은 먹을 것을 파니까 돈 꼭 가지고 가세요! 마지막 주에는 메모리북을 만드는 것을 마무리 하였고 졸업식과 함께 알고마 대학의 3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정말 추웠습니다. 수세인트마리에 21일 있었는데 절반은 넘게 눈이 온 거 같아요. 폭설이 내리는 날도 있었고 비처럼 내리는 날도 있었고 참고로 수세인트마리는 5월인가 6월까지 눈이 온다고 합니다. 목도리 장갑 꼭 필수입니다! 귀도리나 귀마개도 있으면 꼭 지참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핫팩 꼭 캐리어에 넣어서 챙겨가세요!
안전	안전한 거 같아요. 첫날에 집 가는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었는데 어떤 착하신 여성분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밤에는 위험하니 버스 끊기기 전에는 집에 가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저는 운 좋게 순천향대학교에서 같이 파견된 한 살 위 언니와 같은 홈스테이 집에 배정되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저는 엄마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정말 잘해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것을 3주동안 모두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를 데리고 외식도 많이 다니시고 정말 좋았습니다. 침대 커버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갈아주고 저녁도 저희를 위해서 쌀을 이용한 요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식당 () 기타() 제가 살았던 홈스테이 집은 아침은 자유입니다. 시리얼이나 토스트등 자기가 해먹고 싶은 대로 해먹으면 되었고 점심은 엄마가 항상 샌드위치를 싸주셨습니다. 고기샌드위치, 햄치즈샌드위치, 참치샌드위치 등 다양한 샌드위치를 점심을 먹을 수 있었고 가끔은 학교 안에 가게에서 사먹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항상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해주셔서 거의 집에서 먹었던 거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가기도 하였고 홈스테이 엄마와 함께 치킨을 먹으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교통	저는 알고마 대학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떨어진 집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가까운 거리여서 좋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40분 걸리고 버스도 갈아타야 했는데 저는 갈아탈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버스기사님들도 대체로 친절하시고 가끔 쇼핑하러 갈 때 길을 모르면 버스기사님들께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항공료	1,573,1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3,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용돈	640달러 (55만원정도)	외식,간식,선물 등
용돈 모자라서 카드사용	10만원	옷,선물 등
합계	2,256,1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저는 안 가지고 가서 고생을 했던 것이 실내화였어요. 없어도 살 만했지만 집 안에서 거의 실내화를 신는 문화라 뭔가 가져갈 걸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수세인트마리가 시골이라 쇼핑할 곳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큰 물이 두 개 정도 있고 아디다스, 나이키 등 메이커 매장도 많이 있어요. 화장품 매장도 많이 있어서 쇼핑하느라 좋았어요. 그리고 근처에 고급레스토랑도 있어서 쇼핑할 곳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꼭 비자카드나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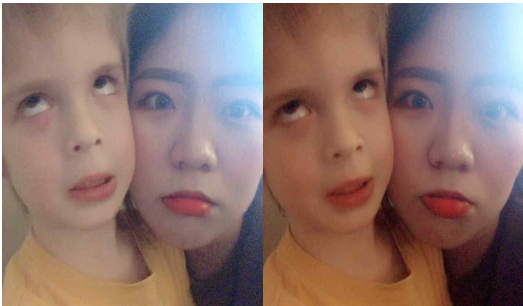
스터카드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줄 한국전통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준비해서 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컵라면, 햇반 등 한국음식도 조금 가져가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캐나다에 있으면 한국음식, 매운음식 굉장히 많이 생각납니다ㅠㅠ 저는 컵라면 가져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돼지코! 꼭 챙기세요 ! 그리고 방 안에 거울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하시는 분들은 거울 챙기는 것도 좋아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정말 재밌었던 삼주였습니다. 가서 영어공부를 하면서 영어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지만 계속 들리는 말이 한국어가 아닌 영어기 때문에 듣는 실력도 굉장히 많이 향상된 느낌입니다. 또 영어 공부 외에도 캐나다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굉장히 많은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 함께 간 순천향대학교 사람들과 캐나다 출국 전에 하는 오티 때 보고 공항에서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친해질 줄 몰랐는데 굉장히 많이 친해졌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더욱 좋은 단기어학연수였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최고입니다. 너무 좋은 추억을 가지고 2018년을 시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첫 날에 제 생일 이었는데 생일 도넛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기 다리 건너편이 미국입니다.
	
선생님들께 추천받아서 간 레스토랑! 정말 맛있습니다.	옆집 캐나다 아기와 사진 찍었어요. 너무 귀여운 개구쟁이입니다.



저의 홈스테이 엄마인 캐시
너무 착하셨습니다



저희 집 앞 풍경입니다!